

실무회담 지지부진... 개성공단 기업들 속탄다

정상화 더 늦어지면 내년 주문 못받아 사업 불투명

장마철 기계·설비 손실... 정비인력 부족·체류 요청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신속한 정상화를 기대했던 입주기업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24일 공단 정상화가 더 늦어지면 당장 내년 주문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계속되는 장마로 기계·설비에 큰 손실이 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8월이 ‘마지노선’” 이후에는 일감 없어” = 입주기업의 60~70%를 차지하는 섬유·복제 업체들은 정상

화가 더 늦어지면 내년 사업마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의류업체들은 통상적으로 6~8개월 전에 주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도 8월에는 정상화가 돼야 차질 없이 내년 봄·여름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의류업체 만선의 성현상 사장은 “가을·겨울 상품을 이미 물 건너간데다 한 달이 지나면 봄·여름 주문도 못 받는다”며 “이후에는 정상화를 해도 내년 4~5월까지 일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차례 방북을 통해 공단에서 가져온 철 지난 완제품을 팔 곳이 없는 것도 기업들의 걱정이다.

대부분 기업은 자체 상표가 없어 원청업체에서 상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마땅한 판매처가 없다. 원청업체들은 완제품이 판매시기를 놓친 봄·여름 상품이라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내년엔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마철 습기에 노출된 설비 걱정에 발 동동 =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계·설비를 보유한 전자·부품 업체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최근 몇 차례 방북으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

를 가져왔지만 기계·설비는 대부분 공단에 방치된 상태다.

북측이 설비반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방북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한 번에 많은 양의 설비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장비·설비 점검을 위한 ‘긴급 정비인력’의 방북과 정비인력의 공단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다.

◇北 재발방지 없이 다시 주문받기 어려워 = 이번 사태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 보장이 없으면 원청업체들과 다시 거래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원청업체들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납품하지 못한 물량을 이미 해외를 비롯한 다른 거래처에 맡긴 상태여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공단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적시 납품이 중요한 부품·소재 업체들은 개성공단 외 지역에 예비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원청업체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바이어들이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개성공단 외 지역에 백업 생산라인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며 “개성공단에서만 생산하는 기업들은 정상화 돼도 주문을 받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협의 착수

정부·청와대·새누리당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문제와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23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실무회동을 갖고 역사교육 강화 대책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조율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를 대입수험능력시험(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지정한다, 하지 않는다 식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대입 제도와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렵겠지만, 당정청이 의견 조율에 나섰다는 점에서 조만간 대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에서 “역사 과목은 (학력)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거론했 바 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취담세 인 하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정보도 청구중” 표시 의무화는 과잉 규제”

신문협회 법개정안 폐기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2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규제”로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개정안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 청구나 조정신청에 따라 알릴표시를 강제하고 있다”며 “특정 신문에 반감을 가진 집단 또는 개인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와 문화부에 제출했다.

지난 6월 문화부가 마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신문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거나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중’, ‘반론보도 조정중’ 등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됐다.

/양세열기자hot@kwangju.co.kr



정전 60년... 협정 서명하는 유엔 수석대표와 김일성

오는 27일로 정전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출범 60주년을 맞는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전쟁이 남긴 상처도 아물지 않고 있다.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고향을 떠나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가족, 전쟁의 광풍에 무참히 희생당한 민간인과 남은 가족들, 남북 대결 속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교로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남북 주민들간의 진정한 화합, 사회문화적 이질성 해소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과제는 해가 갈수록 높고 쌓여만 가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북한 김일성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모습(오른쪽)과 같은 날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스 중장.

이에 대해 해당 구의회 의장은 “사전에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오후 늦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최소한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

지역정치권, 수영선수권 유치 ‘보증서 위조’ 이견

구의회 의장단, 정부 성토 회견 온도차... 하루 연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파문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 구의회 의장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한 정부를 성토할 계획이다.

앞서 구의회 의장단은 24일 정부

가 보증서 위조를 빌미로 대회 개최지 결정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고발 운운한 데 이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내용을 위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장들의 반발로 돌연 기자회견이 취소됐고,

결과 하루 늦춰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연기된 배경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보증서 위조’문제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장인 김동찬 북구의회 의장은 “모 구의회 의장이 광주시장만 옹호하는 기자회견

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해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며 “해당 구의회 의장이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구의회원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의회 의장은 “사전에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오후 늦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최소한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

다고 생각해 늦추자고 했을 뿐 지역 구 국회의원 뜻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파문 책임과 관련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파문과 관련해 통화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간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감자 여섯 알 훔친 북한군 병사 맞아 죽어”

北 전승 행사 준비속 식량난 심각

북한이 평양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승’(7·27 정전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식량난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 대북 소식통은 24일 “올해 들어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각 지방에서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군부대 탈영자 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굶주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공안 당국은 식량난 때문에 사라진 가족 단위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할 가능성에 대비해 색출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지난 5월경 전방의 한 북한군 부대에서 감자 여섯 알을 훔친 병사가 동료 병사들에게 맞아 죽은 참혹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부대 식량이 좋지 않으면서 훈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탈영자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 고위 인사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하계훈련에 대비해 전방군단과 사단급 부대를 방문, 지휘 검열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회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회망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한우전문점 점장 모집
남평을 “솔향기맑은터” 한우전문점에서 근무하실
용모단정하신 점장을 모집합니다.
호텔경력자 또는 관리경력자 45세미만 남녀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퇴직금, 월4회 휴무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지참 면접
문의 010-7570-7525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골짜기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기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대로변 6층건물 매 14.5억(보2.8억/월810만)
-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항동 창고용지(생산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보점포 150㎡ 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선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